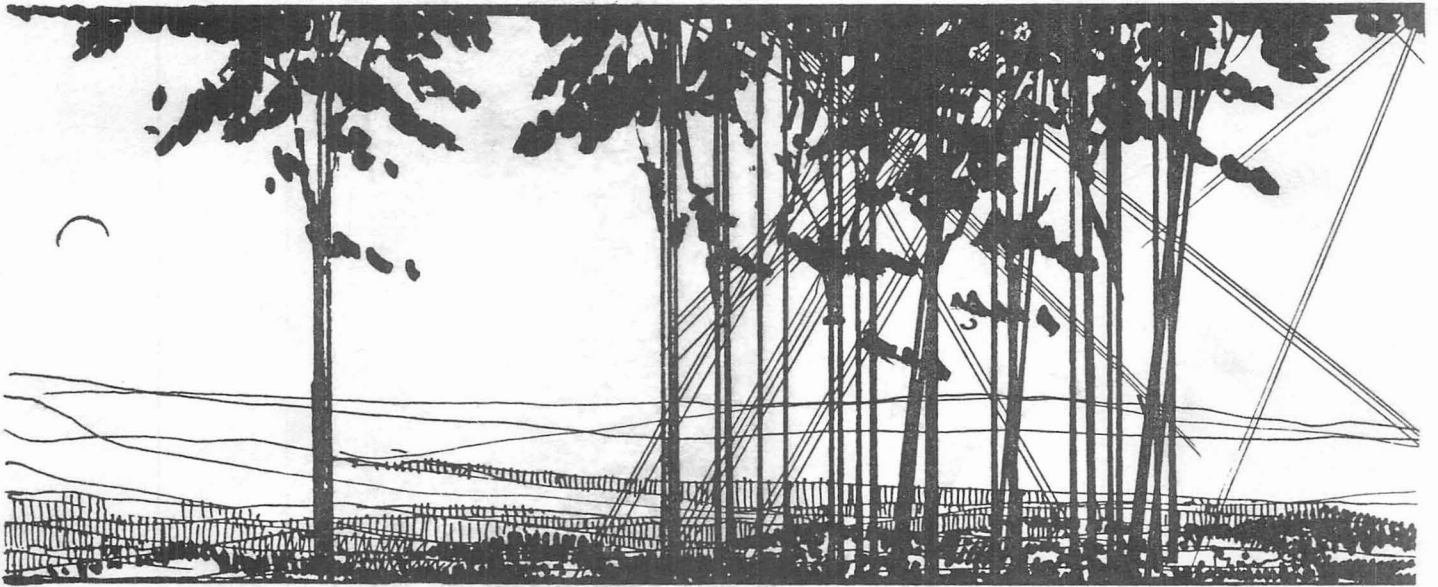


Korean Student Association  
c/o FOREIGN STUDENT OFFICE, U.W.  
SEATTLE, WA. 98195

# 학생회보

제 11 호      위상현주 한국학생회 발행      1974년 11월  
BOX 123 #300 HUB U.W.



한만섭 박사

	차례	차례	페이지
뜻 논	우	점	1
		스 壇	2
전 공 은 구	은	우리文化의 과거와 미래 (최익환).....	4
		한국 민족주의의 가치관 (이익환).....	14
		의류작물학 (노종목).....	23
		명예 박사학위기 (서득구).....	28
학 생 부 인 有 感	은	山 河 (김도훈).....	30
		視 野 들 (이상철).....	34
		(박혜숙).....	37
우 학 생 활 회 고	은	안리강단 고시절 (이창희).....	38
		가을 거리는 金門橋 (전계상).....	42
		나의 꿈 餘談記 (이천복).....	46
회 원 동 경			47
광 교 사 향		현 집 후 기	48



오늘날 우리는 비분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느끼고  
생각하고 正邪眞僞를 가릴 수 있는 일들이 대하하  
아무것도 모르는 愚民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 여년 동안 적지 않은 괴를 흘렸다. 후진적 부근에서 뿐만 아니라  
異域萬里 萬里千里에서 가지 공산주의의 싸우느라고 우리의 근위한 生命을 바쳤다.  
그런데 마다 우리는 自由가 生命보다 귀하다는 自由至上主義 원칙에 따라 드할 수  
없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던데 오즈음 우리가 비로 그 自由, 아니 自由의 回復을  
부르짖고 마다 우리의 生命을 공산주의의 무형의 부러 분포하기 위하여 自由를  
制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가 목숨을 바칠 때는 自由가 生命보다 귀하  
우리가 自由를 찾을 때는 목숨이라도 건질러면 『自由云云』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듣감을 하지 않는가?

흔한 우리는 이른바 『近代化』를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 허리띠도 졸리  
었다. 이런 艱苦에 대한 正當한 댓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귀에 귀저 하거  
들은 것은 西政의 近代化 리정이었다. 後進상태에서 先進상태로 옮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희생은 不可解하다는 것을 西政의 近代化 리정을 해를 들이  
說得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친 그 희생의 댓가를 생각 하면서  
그것도 배앗기 버린 憲政의 復歸를 要求하니 이는 우리의 『特權階級  
狀況』을 모르는 西政의 對하 專大主義 소산이리고 저지 우리를 詰難  
한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리 말라는 『西政·西政』 하거나,  
우리가 西政의 民主政治를 찾아 『한국의 사람이 西政·西政 하느니라』고  
우리를 책망 하지 않는가?

愚問의도 賢答의 答은데 賢問의 愚答 밖의 答은데 可謂  
賢民愚政의 이별가? 우리가 愚民이 아니라는 것을 明白를 中要를  
절감 한다.

# 뉴우스

## 제 1 회 정구대회

지난 7월 13일 Hutchinson 정구장에서 제 1 회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20명 이상이 참가한 열띤시합에서 영예의 우승은 이석보 형, 준 우승은 이익환 형, 3위는 오근호 형이 각각 차지하였다. 학생회는 우승과 준 우승에게 트로피를 증정하였다. 본 대회의 준비와 진행은 전적으로 우영덕 형께서 맡아 주셨다.

## 제 1 회 학생친선 경조대회

지난 7월 26일 Alki Point 해변에서 세아를 학생친선 경조대회가 학생 조도회 (회장 유대식, 총무 박건홍) 주최로 개최되었다. 영예의 대어상은 우영덕 형, 대어상은 유대식 형의 맏딸인 경학양이 차지하였다. 학생회는 이 두분에게 트로피를 증정하였다.

## 중국 학생회와 소프트볼 시합

지난 8월 1 일 IMA 야구장에서 중국학생회와 소프트볼 시합을 가졌다. 심판의 오판때문에 20:19 로 분패하였으나 우리팀은 이러한 심판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주는 아량을 보였다. 이 시합에는 주로 학부회원들이 참가하였다.

## 학생회 대표 I. K. C. 에서 한국소개

지난 8월 중순 박건홍, 장신재 양 형은 방문중이신 외국어 대학 동판 교수를 모시고 Port Angeles 의 International Kiwani Club 에서 한국의 발전상 등을 소개 하셨다.

## 8.15 기념행사 거행

지난 8월 15 일 HUB 에서 광복절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 위한 이날의 강연은 최익한 박사, 이수길 형, 박건홍 형, 김원국 교수께서 맡아 주셨다. 강연이 끝난후 PUB 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관계상 못 다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우선 최 박사의 강연요지를 본 회보에

실리며 나머지 분들의 강연요지도 앞으로 실릴 예정이다.

### 신입생 환영회 개최

지난 10월 11일 PUB에서 1974년도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새로 오신분의 성함과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고 광하 (Law School)	최 영일 (Freshman; Art에 관심있음)
이 등룡 (Linguistics)	허 현숙 (Pharmacy)
강희준 (Economics)	권혁주 (Electrical Eng.)
조총만 (Math.)	이 규명 (Pre-Dental)
김지창 (Electrical Eng.)	

### 씨아들을 다녀가신분

- 김상협 고대 총장 내외분, 6월 28일 HUB에서 강연을 하셨음
- 이태영 박사, 7월 27일 Gould Hall에서 강연회
- 동안 교수, 8월 말경 유대식 형대에서 간담회
- 한미과학기술 협력 상임위원단, 9월 6일 Bagley Hall에서 간담회. 오신분은 최상업 시강대학교 부총장 (단장), 이한빈 숭전 대학총장, 안세희 연세대 대학원장, 김희철 서울공대 학장, 조순탁 과학원장, 한상준 과학기술연구소장, 권원기 과학기술처 기획국장 등임.
- 이윤영 고대 학생처장,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학계 시찰도중 7월 말 씨아들 방문
- 홍승직 고대 사회학 교수, Toronto에서 개최된 국제 사회학 대회 참가후 8월 중순경 모교인 UW 방문
- 윤승영 사법연수원 교수, 미국 법조계 시찰후 10월 말 모교인 UW를 방문
- 홍 강의 미네소타 대학 의과대학 교수, Seminar 참석차 이곳에 10월경에 들리셨음.
- 이병권 하와이 대학 교수 세미나 참석후 모교 방문.
- 김진 일리노이 대학 교수 UW를 방문.

1. 「고독한 나라」

지난 초여름 우리나라의 지식인사 한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돌고 귀국하는 길에 이곳에 들린 일이 있다. 학생회 주최로 저녁에 그분을 모신 자리에 나도 참석하여 감명 깊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말 가운데 특히 세 마음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다 「여러나라를 구경하여도 우리나라 처럼 고독한 나라가 없더라. 는 솔직했다

그 고독의 의미에 대하여 그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모임을 마치고 난 뒤에 나는 세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 고독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 교수자, 시인이 정부관리들은 그 아수라 바다도 빈번히 뱃길을 뚫어주고 있고 적어도 중산층의 생활 양식을 두고 말하자면 전혀 없이 다른 나라의 소위 문화 생활을 답습하고 있는 터인데 이들은 왜 우리나라가 고독한 나라라고 느꼈을까? 필시 이 고독감은 단순한 지리적 문화적 단절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상 싶다.

심각한 고독감은 흔히 그 원인이 나와 남과의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리 나와 자식과의 이룬어진 관계에 있는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고독하다는 느낌도 결국은 우리생활 속에 내포된 어떤 공허감의 반영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공허감은 따지고 보면 우리생활 속에 더딘해지고 있는 엄청난 비정상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20세기 후반에 생존하는 문명화 백성이 벌써 40년세기 동안이나 자정만 넘으면 문밖을 열선도 못한다는 것은 정상한 일이 아니라 또 적어도 10억 이상을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단일체로 살아 온 민족이 두개의 적대국가로 분단되어

불신과 증오로 맞서고 있다는 것도 정상한 사태가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수고와 감성속에 침투하여 마침내 뿌리깊은 자아상실감을 낳어내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한국인은 문득 같은 제나라의 하늘과 땅이 고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남에는 잠을 잘 얻이지 무엇 때문에 나들나 다니느냐」 또 「나라가 두동강이 난것은 이제 어쩔수 없는 일이라 어서 경제성장이나 세들러 다들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가현적인 현실이 마침내 內面化되고 우리의 생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새롭고 증거이다. 비정상한 것이 정상한 것으로 서슴치 않고 받아들여 질때 우리 생활의 비정상성은 그 극점에 도달하였다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비정상한 상태를 탈피하려면 최소한 무엇이 정상하고 정상하지 않은가를 가름하는 가치판단의 기준단은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다. 비록 행동의 계기는 아직 도려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이념만은 살아 있어야 하겠다.

## 2 「한국적」이라는 말

최근 몇해동안 우리는 일련의 두들어지게 비정상한 사태가 「한국적인것」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예를 여러번 보아왔다. 한국적 현실, 한국적 전통, 한국적 법개념,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문화. 이런 말들이 뚜렷한 定義도 없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려운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나 정부모인들이 골골히 생각해 보면 아무 실속이 없는 말을 함부로 피차라는 예는 어느나라이든 볼수 있는 일이므로 「한국적」이라는 말의 석연치 않은 범람에 대하여 우리가 새삼스럽게 놀랄것은 없다. 그러나 학자나 지식인 가운데도 이 모호한 개념을 거르고 어떤 이념체계 비슷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한국문화가 있고 한국적 전통이 있으며 우리가 다 같이 이를 아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異論이 있을수 없다. 문제는 이 한국적 문화의 내면을 어떻게 보고 거기에 어떠한 규범성을 부여하여 나아가서는 우리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그 속에 어떠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가 하는데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취급되어야 하겠고 또 해답도 한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역사도 정치철학도 같이 알지 못하는 한 문학도로서 나는 이 글에서 다만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과 우리가 이루려야 할 문화적 창조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문화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 3 문화의 의미

동양에도 문화라는 말은 옛적부터 있었지만 이 말은 「文治教化」, 다시 말하면 힘이나 형벌을 빌지 않고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라는 말은 영어나 불어의 culture 나 독일어의 Kultur 를 번역한 말이다. 어려운 추상적 개념은 흔히 그것을 나타내는 낱말의 어원을 캐어보면 선명해 지는 수가 있거니와 이 문화라는 개념이 역시 그러하다. culture 나 Kultur 는 다 같이 나뉘어의 cultura (< colere : 아끼다. 돌보다)에서 유래 하였으며 이 어원에서 오는 뜻은 지금도 culture 라는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험실에서 일정한 방법을 좇아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세균을 재배하는 것을 culture 라 하고 또 땅을 천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사람의 힘으로 갈고 거름을 주어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agriculture 라고 한다. 한편 사람이 짐승과 같은 자연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몸가짐을 가꾸고 마음을 닦는 일, 즉 修養을 도한 culture 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culture 의 기본개념은 自然의 대조로서의 人爲, 한결음 더 나아가 生命的으로 주어진 여건에 대한 人爲의 창조적 자주의 행수를 골수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신화에 재이 있는 대목이 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 역사와 문화의 시발점을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원죄에 두고 있다. 즉 이것은 인간이 천이 정하여 놓은 질서에 거역하고 자기의 자위를 주장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에 人爲行爲의 새 차원을 더 한데서 문화와 역사가 시작하였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culture의 어원과 신화를 일관하는 이 사상라는 개념은 현대 인류 학자들의 동의주도한 경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는 흔히 'the man-made part of human environment' 라고 규정되며 여기 에는 일산생활의 도구, 의상, 가족, 언어, 풍습에서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위'와 '행위'의 일체가 포함된다. 문화의 원천은 인간이 오로지 자연의 패턴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탈하여 새것을 지어내는 그 자투리에 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조상들의 자투리 속에서 발생하며 현재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자투리를 통하여 살아간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자투리라는 말을 정치적 자투리나 사회적 자투리라는 다른 뜻으로 쓰고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 4. 민족 문화와 민족의 자취

우리가 금강산과 고려자기를 다 같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전자에 바치는 사랑은 후자에 바치는 사랑과 성질이 다르다. 고려자기는 우리 문화의 일부이고 금강산은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금강산은 우리의 조상들이 찾아와 정복한 땅에 속하지만 고려자기는 우리조상들 자신의 가르침이다. 영국의 초대왕에 근심하던 시기에 어떤 영국사람이 우리는 인도제국을 내놓을 만한 세익스피어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물질적 이익보다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영국사람이 지어낸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영국사람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실 영국은 인도를 볼렸지만 세익스피어는 언제까지나 영국의 일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개인의 경우나 집단의 경우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는 짓이나 해 놓은 일은 그 개인이나 집단의 아이덴티티의 기초가 된다. '나'라는 시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행위'와 '행위'의 총화에 불과한가.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변적 논의가 있을수 있지만 하여튼 나의 '행위'와 '행위'를 배제하고는 '나'라는 시하를 이야기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아이덴티티도 그 집단의 '행위'와 '행위'의 총화로서의 문화를 제외하고는 이를 논할 길이 없다. 서양의 근대사에서

민족문화라는 개념이 루네상스 이후에 범서방적 문명이 해체되어 가는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여 준다. 즉 구라파의 각민족이 자신을 어차의 다른 민족과 뚜렷이 구별해서 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부득이 중세기 이후의 범구라파적 문명이 아닌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를. 철학 종교 등에 국한하는 것도 이러한 정신활동의 소산이 순전히 물질적인 것 보다도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민족문화를 똑바로 이해 하고 아끼는 태도는 민족적 긍지의 표현이요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그러나 여러민족의 역사에 민족문화의 고유성. 특이성을 우달리 강조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다 그것은 마치 성벽에 금이 간 사람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는 충동에서 이상하고 과격할 행동으로 나가는 것과 비교 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계기에는 두가지 두드러진 경우가 많았 같다 첫째는 한 문화가 외래문화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말살되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나는 文化的 復古 運動 이다 그것은 유체가 병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열이 나는 것과 같아서 필로하기는 하나 결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이다 19세기말에 북아미코다 열매의 인디언들이 일으킨 The Ghost Dance Movement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소 성질은 다르지만 최근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이 벌리고 있는 전투적인 문화운동들도 넓게 보면 다 이 범주에 속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는 동학운동이 여러모로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었던 것 같다

고유성을 강조하게 되는 두번째 경우는 그 중절이 「우리의 문화가 있다」 하는 것 보아 「우리의 문화는 아주 다르다」 하는데 있다. 이 문화관이 한 사회의 지도적 계층으로 등장하게 되면 자못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민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은 황사리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남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좋다」는 주장으로 번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理性的 思考나 온 인류의 良識에 입각한

가치가론에 대한 깊은不信과 不信을 내포하고 있다. 누구나 수증할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자기는 특정한 존재, 일반적인 이치를 초월하는 더 고차적 진리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하는 주장이다. 현대사를 더럽힌 暴政의 철학이 대부분 국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아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리안 支配族의 신화를 날조하고 무도한 짓을 자행한 독일의 나치나 神國論을 표방하고 우리를 짓밟던 일본 국수주의자들은 이 철학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가를 역력히 보여 주었다.

## 5. 고구려문화의 의미

근자에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부도를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주장이 정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악이용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하여 두고 싶다. 「한국적」이라는 낱말이 한국의 어떤면을 기술하기 위한 수식사로서가 아니라 어떤 국수주의적 가치의 표현으로 사용될 때 이미 거기에는 타협할 요소가 깃들고 있다.

국수주의자들은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누누히 역설하여 위대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이나 역사를 분석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정신을 망각한 비애국적인 짓이라고 이를 반박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고유하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유교를 빼고도 李朝의 정치, 사회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교를 제외하고 신라, 고려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만난 일이 없고 유교나 불교가 우리 문화의 고유한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더군다나 들어 본 일이 없다. 국수주의자들은 우리문화의 기본적 요소가 다 한반도 밖에서 흘러들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재래종교인 샤머니즘도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고 북반구 전역에 퍼져있던 원시종교이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라고 하는 단군설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고고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북아메리카에서 알래스카, 시베리아를 거쳐 멀리 유대이스터 대륙의 서북단 켈트랜드에 이르기까지 곰에게 神性과 人性을 아울러 부여한 원시시대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단군신화는 바로 이 신앙을 한반도로 흘러 들어온 북반 유목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보아서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문화를 형성하는 말이 아니라 관으로 위대한 사상이나 문화적 가치란 곳곳에 비산처럼 들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문화사는 결국

한정된 수요의 전경 위대한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퍼져가고 또 퍼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혹은 변하고 혹은 심화되어 갔는가를 따듬어 보는 이야기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훌륭하다고 지목하는 그 어느나라의 문화치고 그 나라 안에서만 싹트고 자란 것이 있는가? 중국의 경우를 예외로 들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나라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하는게 옳다. 모든 훌륭한 문화적 가치는 민족이나 나라의 한계를 넘어 널리 퍼질 수명을 지녔으며 이러한 보편한 가치를 배격하고 자기 자신의 것만을 고수하는 민족은 문화적 번문을 면하지 못한다. 한민족의 문화적 창의성을 꼭 놓여서 유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우리문화의 고유성은 우리 문화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집합에 중심을 주고 위치를 주는 질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 6. 과거와 현재, 전통과 창조

이 질서의 성질을 바로 이해하는데 있어 우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靜的인 것이냐 動的인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알듯 생각하기에, 만일 우리의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 과거 전부로 이루어지는 질서라고 한다면 이 질서는 靜的인 것 고령한 것이 될수 밖에 없는것 같다. 그 이유는 과거는 이미 끝난것, 변형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것이 우리의 통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혼동한 생각이다. 역사적 시간은 그것이 위기의 차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과 엄연히 구별된다 어떤 사실이 순전히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한번 끝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갖는 의미는 각기만 변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연속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 시간이다. 60년여 초엽 그토록 즐기차 보이던 4.19의 돌결이 5.16을 맞아 썰물 같이 물러가던 무렵, 4.19는 과연 혁명이었느냐 혹은 단순한 위기였느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진 일이 있다. 그러나 4.19의 위기는 4월19일에서 6월 사이에 일어난 사실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사회가 걸어온 과정속에서 계속하여 변해왔고 또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4.19는 끝났지만 위기로서의 4.19는 끝나지 않았다. 철학자

R. G. 콜링우드 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의 민족문화는 動的인 질서이다. 우리문화의 고유성은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제한하는 영애가 아니라 그 자위에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살아있는 원리이다. 오히려 나는 우리의 민족문화는 우리조상들의 자위속에서 자라나 우리의 자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작업은 우리의 자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진정한 대화는 현재도 또한 과거와 처절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T. S 엘리엇은 "전통과 개인의 지능"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만일 전통이라는 것이 지난간 세대가 해 놓은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버려야 한다. 단순한 묵수주의가 허사로 돌아가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럴수록 없는 것이 옛것을 되풀이 하는 것 보다는 새것을 지어내는 것이 더 가치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통이라는 것은 그곳이 더 광범하다. 우리는 전통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직 모진 노력을 기울여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전통은 무엇 보다는 역사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

역사적 감각은 과거를 과거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의 현재성을 보는 것을 뜻한다.

... 한 작가의 전통성은 - 一時的인 것 뿐만 아니라 永久的인 것을, 또 永久的인 것과 - 一時的인 것을 동시에 파악하는 역사적 감각에서 오는 것이다.

호미 이후의 장구한 서방문화의 전통을 그 누구 보다는 깊이 숭상한 엘리엇이 또한 그 누구 보다는 참신하고 대담한 현대시를 썼다는 일췌한 바에 모순된 사실은 이 動的인 전통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해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는 진정한 전통주의자 였지 천박한 전통 묵수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제아무리 극단한 전통 묵수주의자라 할지라도 과거를 그대로 되풀이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슬직하게 들어내기를 꺼리는 사실은 그가

말하는 과거라는 것도 항상 현재 그가 품고 있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취사  
 선택한 과거라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한국적」인 것의 장점은  
 李朝의 문화에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선하나  
 고쳐, 심지어 고려 문화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가운데 어느  
 한 시기를 다른 시기에 바라며 「더 한국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 사람이  
 현재와 장래의 한국에 대하여 바라고 있는 주관적 소망 이외에는 없다  
 즉 가장 순수해 보이는 과거관도 반드시 그 속에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  
 없는 대화」를 지고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 대화를 가장 폭넓은 타원  
 위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動的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최근의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문학적 전통을 가장 함락해 계승하고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직시한 예를 나는 김지하의 러  
 감동적인 두 편의 장편시에서 찾아본다. 「크트제」이나 「황금」은 시학적  
 주제만을 다룬 단순한 즉흥시가 아니다. 그 어찌 하나 하나 이미지 하나 하나를  
 통하여 이 시들은 지난 수백년 동안의 우리 문화와 거기에 담긴 애환과 분노를  
 함창과도 같이 불러 일으킨다. 그 절절하고도 예민한 詩行들은 뉘어 가노라면  
 판소리, 무당노래, 사설시조의 거락과 리듬과 드라마가 쫓겨나 쟁쟁하다. 그러나  
 김지하가 전통을 대하는 태도에는 신라의 말에 한숨을 먹고 강릉이 넘바드는  
 백로를 읊조리는 것과 같은 감상의 시치나 도희자의 처연 치레가 빠져 있다.  
 그에게 있어 전통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사는 길이다. 한편 이토록  
 치열하게, 충실하게 현실을 직면한 그의 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학적  
 전통만이 아니라 전통문화 자체가 전혀 새로운 위기를 갖게 된다. 그의 시를  
 읽고 나면 판소리나 사설시조를 듣는 우리의 귀가 달라진다. 판소리나 사설시조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을수 없었다면 김지하라는 시인으로  
 해서 판소리나 사설시조의 의미에는 새 차원이 더하여진 것이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나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은 어떻게 이어 받아 어떻게  
 창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거와 현재의 動的인 관계, 그리고 전통과 창조에 대하여 놓을수 없는 相보  
 補完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데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적」

이라는 것이 쇠퇴된 문화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구호로 전락하고 가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온갖 비정상한 일, 뻔뻔하지 못한 일,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벌려 놓는 이를 「한국적」인 것이라고 평양화 한다면 나라 이름에 대한 모독이 어안 리 할 수 없다고 하겠다. 18세기 영국 문단의 거수 사무엘 존슨 영어사전을 편찬하였을 때 「애국심」이라는 말을 「부랑당놈들이 자기들 자신」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적」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그러한 「한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늙어가고 공허한 민족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한 국수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바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개방된 動的인 질서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靜止적인 一인 질서로 보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글) (비교문학 박사)

(22 페이지에서 계속)

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은 띠는 관계인지, 그 관계의 깊이와 폭은 어떠한 것인지, 이들을 한데 묶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내부적인 모순이나 제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분석은 또 하나의 길다란 논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Palais 씨가 도외시 했을 수도 있었겠거니와 우리도 여기에서 더 이상 논급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평면적인 사회구조의 분석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또 Palais 씨의 긴 역사적 안목이 보지 못하는 단기적이거나 또는 소규모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 박사 과정)

<論壇> 한국 민족주의의 價值觀 - James Palais의 소론에  
대해서 이 익 환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보는 입장이나 각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가져 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바다. 우리가 자라나온 한국을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결국은 같은 사실이라도 분석 시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옳느냐 그르느냐를 따지는 것 보다는 그 서로 다른 입장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입장을 어떤 시점에서 택하느냐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가 몹소 겪어 왔고 자주 여기도 하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우리의 사고에 깊이 스며 있고 또 지금까지 학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결」 이랄가 「냉전체제」 라고 할가 하는 종래의 입장을 떠나 오즈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Revisionist Historiography 의 입장에서 본 논문집이 한껏 나와 있다. 이 책은 (Frank Baldwin, ed., Without Paralell: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Pantheon Books, 1973, \$ 3.95) 한국을 공부하는 비국적 젊은 층의 미국 학자들의 논문을 실은 것인데 지금 UW의 한국사 강좌에 교재로 쓰여지고 있다. 이 논문집의 주류를 이루는 특징은 1945년 이후 한국의 역사적 발전이 미국의 대 공산주의 전략 및 외교정책과 그에 따른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해" 되어 왔고 "베껴져" 왔는가 하는 문제의식인데 이 입장은 미국을 「자유세계의 보호자」로만 보아 온 기존의 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비단 한국을 알고자 하는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자신의 역사를 넓게 되새겨 보는 데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Democracy in South Korea, 1945-72"는  
UW에서 한국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James Palais 교수가 쓴 것인데,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한국 정치를 개개의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넓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읽기에도 쉬울 뿐더러 문제성도 있다.  
다른 논문에 비하면 그 내용이나 주장이 우리에게 차라리 너무 귀에 익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런데로 일관성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다.

논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 제목 첫머리 'Democracy'가 표시  
된 인용부호로서 우리는 Palais 씨의 문제의식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즉 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었고 다만 그것과 비슷한 것  
또는 '가짜' 만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대 여섯 가지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문의 줄거리를 흐르는 것은 두 세 가지의 요소이다. 첫째로는 한국  
에 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또 실천하려고 한 정치 지도자들  
이 없었다는 것. 이 정치 지도자의 문제는 한국 사람에게서 이전  
진부한 얘기가 되어 버렸지만 근래의 이곳 사회과학의 경향에서  
보면 새삼 의미가 있는 말이다. 즉 정치 현상을 지도자, 국민,  
가치관 등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경제구조, 경제발전,  
도시화 등등의 소위 객관적 또는 수량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일부의 "과학적 사회과학"의 경향이 재차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인간 현상에는 경제·사회와의 함수관계로서  
만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독립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새  
로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옛날 Aristoteles 때 부터 해 오던  
얘기이니 학문의 경향이란 것도 왔다 갔다 하는 상 싶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특히 집권자들의 비 민주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저자는 1948년 이래의 이승만 씨,  
1961년 이후의 박정희 씨의 장기 집권과 그것을 둘러싼

수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바이니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또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긴박한 과제 — 안보, 통일문제, 경제발전, 근대화 — 들이 민주주의의 성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정부권력의 집중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이 집권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온 변도 있지 않고 지적하고 있지만 저자는 그 문제들이 한국정치에 주어질 어쩔수 없는 부담이라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패한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국가목표의 긴박성 보다는 건전한 민주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나 가치관의 결여에 있다." (p. 320) 고 본다. 이 가치관의 문제는 비단 정치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국민 전체에도 있는 결합인데 그들에게는 민주적인 절차나 제도 보다는 경제발전, 생활안정, 통일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로간들이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한편으로 공정한 선거와 정치를 원하면서도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기도 "한 사람도 나서서 이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입법부나 사법부가 정부권력에 의해서 약화되고 언론 집회의 자유가 침식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서 나서 본적이 없다." (p. 327) 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장식하고 있는 4.19도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넘어 드렸지만 실은 참다운 민주적 가치관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장기 집권에 누적된 부정 부패, 경제 퇴폐에 대한 부정적인 반발이었다고 본다. 그후 한국민이 자유를 최대한 누렸던 민주당 정권이 일년도 채 못되어 망해 버린 것도

지도세력의 분열, 파벌주의, 소란스러운 언론, 학생의 정치화,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의 중요한 원인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초기단계의 민주주의에 있을수 있는 폐단을 부정적으로<sup>만</sup> 보고 질서와 안정을 바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16이 났을때 국민대다수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는 그 사실을 소극적으로나마 받아 드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비 민주적이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나 가치관에 반해서 그랬던것이 아니다. 즉, 그들의 지배가 "독재적" (dictatorial) 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독재자" (dictators) 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p. 351)

Palais 씨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원래 한국인 자체가 민주주의 가치관을 결여하고 있는데다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러했으니 한국과 같이 어러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혁"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values, p. 321) 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민족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양태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온 만큼 그 "근본적인 변혁" 이란 짧은 시일내에 가능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경쟁적인 민주정치라고 하는것들은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지 않을것이다." (p. 352)

집권자의 결함, 국내외 정세의 긴박성, 한국인의 민주적 가치관의 취약성을 얘기 할때는 별 이의가 없다가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어둡다 그 하는 결론이 떨어질때 좀 의아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줄로 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떠들어 보았자 무어하느냐' 하는 비관론도 나올수 있고 Palais 씨의 글은 한국 현실을 사실상 '정당화'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가능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Palais 씨의 논문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설명이지 정당화는 아니며 또 어떤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매몰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은 미리 지적해 두고 싶다.

Palais 씨의 글을 읽노라면 국민대다수의 민주적 가치관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저자의 원래 의도가 이정도까지 강한것이 아닐지도 모르나 이런 종류의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기 때문에 이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적 가치관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라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가치관의 동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국민의 민주적 가치관 — 영어로 democratic consensus — 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한때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인상으로 1950년대 중엽부터 성행되어 왔던 정치학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이 용어는 이제 상당히 부정되어 가고 있는것 같다. 요즈음 학자들의 얘기인즉, 미국의 일반국민은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동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가서까지 민주적인 의사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이 방면의 한 대표적인 연구 (H. McClosky,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June, 1964), 361-382) 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정치적 평등 또는 진리의 상대성이란 추상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모두가 동의를 보이지만 같은 원리를 구체적으로 응용해서 "투표권을 현명하게 (intelligently)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하는가?" 하고 물었을때는 대답한 사람들중 47.6%만이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Palais씨도 말하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가치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경우인데

"오랜 참다운 미국적 생활풍습 ('true American way of life') 이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보호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설문 에 대해서 35%나 동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움직임은 상황에서 민중주의 원칙에 대한 consensus란 없다고 보는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야기다.

이 'democratic consensus'와 비슷한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신화로서 민중주의란 모든 구성원이 열심히 정치에 관심을가지고 참여해야 잘된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이것은 중 고등학교 공민교과서에서 곧 잘하는 야기지만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달된 민주 국가 들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또한 이곳에도 선거때가 되니 대통령, 정치인, 신문, 텔레비전 할것 없이 제발 투표 좀 해 달라고 한창이다.

이런 현상을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것 이라고만 한다면 너무 편타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정치보다 football을 즐기는 이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말하듯 그렇게 나쁜것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식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라든지 미국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력이라도 행사 해야겠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정치에 참가해서 혹시 영향력이라도 갖게 될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만 이다. 그런 종류의 사람뿐 아니라 도대체가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너무 열을 올리서는 민주주의고 무엇이고 너무 시끄러워 통치자체가 어렵게 될것이다. 극단으로 말해서 국민이 부식해도 탈이지만 모두가 정치학 박사들 이라도 큰일이다.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형태인 이상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면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를 해야 하는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가를 감시 하고 정치에 관여 하는것도 더 할수 없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들을

믿고 좀 여유있게 통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는 아량도 중요하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자의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십여년전 미국 정치학자 몇이서 돈 수백만불을 들여 민주국가 다섯나라  
의 '정치문화' (국민의 가치관이라 해도 좋다) 를 비교 연구 한적이 있는데  
그 연구의 한 결과가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것은 국민이 참여자 (partici-  
pant) 로서의 성향과 백성 (subject) 으로서의 성향을 적당히  
섞어 가진 그런 정치문화 라는 것이었다. 옛날 Aristoteles 가 돈  
한푼한들이고 말했던 "polity" ( aristocracy 와 mob-rule 또는  
demo-cracy 와의 중간형태) 라는 개념도 그와 기맥이 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지금 한국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부르짖음 이 틀린 일이라거나 또 그 나서고 있는 이들에게 정치적 무관심  
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단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 국민대다수가 어떤 가치관 으로 통일 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  
하다고 하는 교과서 적인 통념을 재고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다수  
국민의 가치관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 했다고 하는 얘기는  
서구의 민주주의는 한국인 몸이 맞지 않는것이니 한국에는 "한국적인  
무엇" 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사람의 몸이란 옷이 너무 작아 통 들어가지도 않는 다음에야 조금 커도  
또는 조금 작아도 그런데로 입고 또 편히 지낼수도 있는 그런 적응력  
을 가지고 있는것이라 생각한다. 같은 옷이라도 사람의 몸 생김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도 그것을 실천하는 국민의  
성격 또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style 만 다를 뿐이지 ("한국적 민주주의" 가 결여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  
본질적 공통점은 반드시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대다수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혁" 까지 필요  
한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서독은 민주주의의 표본은 못될지  
언정 민주주의를 잘 해 나가고 있는것은 틀림 없으며 전후 일본 민주

주의도 문제점은 허다하지만 2선제로 민주체제를 잘 꾸려가고 있다. 2선제 이들 나라는 30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가 실패한 돌분이었다. 그렇다면 전후 30년간 국민 대다수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혁이 있었단 말인가?

나의 소견으로 원래 국민 대다수란 우선 먹고사는데 바쁘고 사회경제적으로 성격이나 이해관계가 다양하며 교육정도나 그 처해 있는 입장, 경험에 따라 사고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어떤 정치체제가 좋다 그르다 하는 가치기준도 서로 다를 것이며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 (preference)의 강도도 전반적으로 볼때 상당히 약하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통합되지 않는 한 어떤 체제의 선택이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란 힘들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성공·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직·또는 집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경우를 놓고 보자면 집권자를 위시한 정치지도자 그룹, 정당, 관료, 군대, 언론, 학생, 기업가층, 종교집단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Palais 씨가 가장 중요시하는 집권자 및 정치지도자 그룹 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관이 중요하다면 이 엘리트 차원에서 중요하다. Palais 씨가 누누히 말하듯 지도자들이 헌법 질서를 편의에 따라 어렵지 않게 뜯어고치고, 반대의견이나 불평 불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절차나 수단을 가법히 취급하는 그런 관국에서는 민주주의란 되기 어렵다.

표지도자 그룹의 가치관이 중대한 관건이라는 점에 하등의 이의는 없지만 그와 아울러 따져야 할 것은 그 사회 엘리트 또는 집단 간의 세력관계 일 것 같다. Palais 씨의 글은 가치관에 좀 치우쳐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사회집단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가치관 하나로서 민주주의가 보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원칙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다 알다시피 사람의 생각이란 때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하는 행동도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변소가 기전라 보니 난후와는 생각이 다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애초에는 아무리 투철한 민주주의 자라도 권력을 한번 잡고 나면 생각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꼭 사람이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권력은 타락하게 쉬우며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 고 한 문인은 지도자의 가치관이 분제되는 한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민주적 지도자 얘기가 나오면 으레 예로 드는 영국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견제와 균형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뿔뿔히 흐러져 있는 국민이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는 경쟁적인 정치가 그룹, 정당, 언론 등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최근 비국정체제를 뒤 흐든 Watergate 같은 것을 볼 때, 시끄럽게 먼지질 전보질 해 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한 비국시민들의 극성에 감탄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역시 사건 전체를 Nixon의 사임에까지 이끌고 간 것은 언론의 힘이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질서를 뜯어고친 하나의 사실을 두고 볼 때 우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또 그 세력의 가치관 내지는 성격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아울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조건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객관적인 조건이란 다음아니고 한국에 있어서 사회집단 간의 세력 관계가 권력을 행사 하는 쪽의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Palais씨도 집권자-군대-기업 간의 연합관계 (alliance) 를 말하고 있다  
(13 페이지 계속)

人類의 物質的 生活에 基調를 이루고 있는 衣食住에 있어서 食과 住는 모든 動物에도 共通的인 要件이지만 衣即 被服은 特別히 人間에게만 屬하는 不可缺한 生活의 要素이다. 衣生活의 起源으로는 羞恥觀念論, 身體保護論, 美的觀念論 등으로 그 動機를 分析하고 있는 一般的으로 人間이 日常 입고 있는 衣服에는 크게 두가지의 目的이 있다. 그 하나는 外界로부터 自身을 보호하는 目的으로서 身體를 대상으로 한 保健衛生을 爲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着用者 自身을 裝飾하는 容儀上의 目的을 들 수 있다. 容儀上의 目的은 社會생활 가운데서 他人에 대한 自己表現과 禮儀의 品格을 지키고 紳士성을 나타내며 所屬의 地位를 區別시키는 美的 感覺을 만족시켜 주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衣服의 美化와 더불어 衣服이 지니는 科學성을 종합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概括的인 知식을 바탕으로 考案된 衣服만이 合理的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衣類織物學에 관련된 몇가지 主要分野를 간략하게 다루어 보기를 하겠다.

現代人は 合理的이고 아름다운 生活을 爲하여 디자인 (design)의 研究를 必要로 한다. 디자인이란 계획을 明示하는 것으로 그中 服飾 디자인은 變化する 社會環境에 있어서 現代人の 感覺에 맞는 效果的인 表現을 爲하기 爲한 流行條件, 制約을 正確하게 消化시켜 가면서 色彩, 形態, 材料, 技術 등을 衣裳에 적용하여 研究하는 科學이라 하겠다. 디자인은 또한 우리 生活 環境에 있어서 많은 制約과 必要條件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인스피레이션에 의하여 테마를 이루어 디자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一定的인 事物에 대한 正確한 관찰은 새롭고 기발한 造形美를 창조하며 人間이 창조한 形象과 生命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周圍의 모든 것이 디자인의 테마를 이루고 있다. 이들 테마는 垂直線, 水平線의 곧고 단조로운 美의 效果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直線과는 대조적인 曲線의 부드럽고 다양한 변화의 방식의 多岐로운 方向의 效果에서 유효하게 구성되고, 時代的으로 그 모습을 달리 하는 건축 양식과 自然物의 形態와 歷史的인 衣服과 器具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織物을 그 材料로 여러 體型에 따른 패턴 (pattern)을 연구하고 디자인을 實物 제작하는 技術을 養成하여, 衣服이 着用者의 體型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目的이다.

이 제작과정은 곡의 平面 패턴과 立體 패턴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縫裁 技術을 거쳐 디자인의 實果적인 表現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服飾美의 연구까지는 매우 다양하여 그 규모와 범위를 限定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服飾美의 기본이 되는 것은 服飾 디자인의 基本原理로서 一般的으로 모든 디자인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proportion, balance (symmetrical, asymmetrical balance), rhythm, harmony 등을 주요 원리로 하여 服飾의 構成美를 이끌어 낸다. 服飾美가 받는 가장 큰 制約은 人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며 各時代마다 변화하는 人體에 대한 觀念과 그 自体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古代 希臘時代에는 人間의 肉體美가 갖는 意味를 認識하여 美的 肉體는 곧 誠實·善良한 精神을 意味한다고 믿어 人體의 起伏와 柔軟성을 表現하는 간단하고도 노출된 衣裳을 着用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着衣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人體노출을 거부하던 時代에는 衣服이 지는 象徵성을 最大로 利用하여 階級, 존엄, 富裕를 과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時代가 要求하는 人體美의 方向은 服飾美를 좌우하는 큰 要素가 되는 것이다.

衣服의 形態뿐 아니라 色彩가 주는 美的 영향은 또한 큰 것이니 色相 (hue), 明度 (value), 彩度 (chroma)의 다양한 色彩 조화를 이루어 美的 感覺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오늘날의 急進的이며 복잡한 史的 變遷의 渦中에서 現代의 가장 特性的인 色彩 配合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지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47년 Christian Dior의 『New Look』을 發表하자 兩次 世界大戰을 치르고난 이듬해 國民性에 새로운 美的 感覺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하고 끊임없이 變遷하여 1964년 Mary Quant의 Mini Skirt에 이어 오늘날 Maxi style에까지 이르러 되었다. 이와 같이 人間이 갖는 美的 追求는 모든 藝術의 원동력이 된다. 色의 魔法師로까지 불리우는 정도로 色彩에 처한 大膽性을 가지고 있는 Pierre Cardin의 成就是 극히 當然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色彩 내용과 디자인은 『調和』에 依하여 최종적으로 成되는 것이다. 衣服은 線과 形의 分量, 色의 分量, 材料의 分量이 서로 調和를 이루었을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을 形成한다. 色彩의 調和에 관한 代表的인 理論으로서 Ostwald의 調和論과 Spencer의 調和論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同一調和 (Identity), 類似調和 (similarity),

對比調和 (Contrast) 를 中心으로 調和色을 分類·研究하고 있다.

東西洋을 莫論하고 服飾은 하나의 自然的 產物 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文化的 產物 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服飾은 그 나라 民族의 生活背景을 反映하고 있으며 民族文化의 차이와 至大한 影響을 지녔다. 따라서 그 나라 文化의 社會的 배경을 통하는 服飾을 이해 하고 服飾을 통해서도 그 時代의 文化와 社會를 엿보려 함은 實證的이고 科學的인 연구 方法이라 할 수 있겠다. 服飾文化의 發展해은 經過中에 人間의 有機的인 生活의 成長을 엿볼 수 있으며 同時에 史的 變遷에 따른 服飾의 樣式을 알 수 있다. 社會의 地位에 대한 社會的 表徵으로써 衣服의 裝飾物 一切을 달리 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古墳壁畫, 遺物, 史的 文獻 등을 지문로 연구한다. 우리 民族이 他民族 文化와 있을 때의 服飾 影響은 至大한 것으로써 國有服飾時代, 唐服飾影響期, 宋服飾影響期, 蒙古服飾影響期, 明服飾影響期, 朝鮮服飾形成期, 西歐文明影響期로써 区分하여 開化期의 民族受難期를 걸친 研究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衣服은 또한 社會的·心理的인 側面에서도 研究分析 될 수 있는 성인이 아동을 區別할 여지 없이 다양한 心理現象을 나타낸다. 상호간의 關係 차이와 서로 다른 관심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行動을 일으키는 生活 環境과 境遇條件 등에 따르는 흥분과 불만의 起因하는 心理상태가 人人의 衣服에 그대로 表現된다는 것이다. 就中前이런이와 경우 스스로 脫着衣의 對한 기능을 익히므로써 每事에 自主的인 태도를 익히며 他人의 注意를 끌기 위하여 새 옷을 양기 원한다.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交友關係를 갖게 되는 자기 그룹에 알맞은 의복을 원하게 되고 그것에서 尊嚴의 尊嚴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신취적으로나 心理적으로 예민하게 變化하는 青年前期에는 衣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clothing leader가 活動 그룹의 leader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인기를 쫓아하는 지경이 된다. 이러한 傾向은 가끔 社會기준을 넘어서 過度現象을 나타내며 신진세대와 기성세대와의 距離感을 갈등으로 변질해 버리게 된다. 모든 면에서 尊嚴한 경지에 이르는 青年後期에는 社會生的인 태도로써 自主性을 확고히 함으로써 社會生活에 적응하고서 한층 衣服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은 青年期의 社會活動의 影響을 주의 품은 외면의 그룹은 社會참여의 志願을 갖게 되어 每事에 進取的이다. 反面「clothing deprivation」이 있을 때 능동적인 참여를 버리는 이른다. 老年期에는

체형의 劣化 하는 탓으로 더욱 매력적인 衣服을 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衣服의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은 그 형태와 재료가 아닌 色彩가 갖는 色感에서 더욱 두드러져 있는 실로 色彩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무의식을 유발시킨다. 赤色계통의 暖色은 음성적이면서 소극적 이고 靑色계통의 寒色은 양성적이면서 적극적이다. 밝은 黃色은 中國뿐 아니라 西歐 기독교에서도 聖스러운 色彩로 中國民族 세력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 임금의 黃色도포를 착용치 못하였다고 한다. 의두는 黃色은 大衆이 싫어 하는 色彩로서 10세기 前後 불란서에서는 반역사. 犯罪者들의 집 단속을 이러한 의두는 黃色으로 칠하였고 유다 (Judas)를 그럴 때 黃色옷을 입어서 不快感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紫色은 古代 임금이 애호하였던 王權을 상징하는 色彩였고 Violet은 우울한 색으로 종교상징으로서 聖者의 참회를 의미한다. 靑色과 綠色은 Faust, 唯神論을 暗示한다. 그중 녹색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 이고 아늑한 色感을 가지고 있어 신앙, 不誠, 冥想을 상징한다. 復活記에 쓰이는 녹색은 그리스도의 復活을 의미하는 흰 녹색을 洗禮를 의미한다. 白色은 순결, 진신을 상징하며 中國과 우리나라에서는 儀禮에서 喪中의 死別을 뜻하고 西歐에서는 婚嫁 衣服의 전통적인 色彩가 된다. 黑色은 의제와 압박을 상징하여 깊숙하고 深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西歐에서 黑色은 슬픔, 우울, 죽음을 의미하는 또한 비밀, 공포를 암시한다.

人口의 증가에 따라 織物으로가 높아지고 더욱 산업혁명을 계기로 紡織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被服材料의 구성원료도 天然 섬유에만 局限되지 않고 人造 섬유 나옴으로써 合成 섬유와 영약에 가지 이르게 되었으며 衣生活에 지친 영향 실로 큰 것이다. 더욱이 섬유의 특성에서 人間의嗜好 및 生活의 要求에 따라 染色加工, 特殊加工의 技術이 出現하여 다양한 造織과 무늬의 개발에 따라 世界의 모드를 이끌어 가는 fashion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게 되어 織物의 선택이 가지는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다룬 衣服에 관한 관념과 理論이 生活속에서 大衆化 될 때 한 時代의 流行 (fashion)을 이루게 된다. 이 流行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時代的으로 大衆性을 띄워진』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女性들이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fashion을 追求하게 된다. 時間이 흐를수록 流行이 fashion은 盛하기를 하며 또 거슬러 수그러서 소멸 되기까지 하면서 周期 (cycle)를 이루게 된다. 1947년경의 long hemline 등

1950年代의 Maxi line으로, 1960年代에는 무릎선까지, 1965년以後부터는 Mini line으로 그리고 다시 1970年代에는 long line으로 fashion movement를 이루고 있는 이런 fashion은 현실은 복잡한 사회현상의 여러 갈래지만 大衆의 必要와 嗜好의 진유되는 것이다.

以上의如衣類織物學에 關한 主要한 몇가지 分類를 간추려 보았는데 甚多 合理的인 衣生活을 導引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衣生活의 관심을 더욱 廣기시키고 感性的인 動員력을 가지고 研究에 참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重要하며 이 간단한 글이 衣類學 연구에 多少나마 참조가 되어 앞으로 우리 衣生活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희정 형우부인)

## ~ 명예 박사 학위 기 ~

서두수

내가 '코멘스펜트'라 일컬으면서, 하는 노릇은 정녕 우라에의  
 졸업식임에 틀림 없는 마당에서 이르러 박사學位를  
 주면서 주는學位증서를 처음 듣기는 지금으로부터  
 四半世紀前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데, 이날일사 몹시 日氣  
 가 화염지근한 六月의 어느날인것 같다. 내가 서울大學  
 에서 명예학위를 개노일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의논하던  
 때의 경험으로는 딱 이상한 風氣가 전개되고 있는것이였다.  
 이미 故인이 된 한 女流舞臺인과 그 당시 國際聯合의  
 보배로운 존재에 있던 黑人 출신이고 「노벨」 平和賞으로 그의  
 공헌이 기림받던이의 명예학위인데, 이미 세상을 떠난 女流,  
 무대인에게 posthumous로 학위를 授與한다는 것도 일러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다가 후인 카츠헤비에게 명예학위를 주게되는  
 이유가 몹시 逆었다. 꽤 똥똥한 그에게 「후드」를 걸어주면서  
 읽어가는學位증서를 주인공은 알았나 表情하나 짓지 않고  
 듣고 학위를 받고서 모든 사람들은 손뼉을 한참 친다. 아무리  
 해도 억척은 나의 마음은 좀체 가라앉지 아니 하였으나  
 本人은 滿面에 미소를 세우면서 壇위에 되어 있는 자기자리  
 에 앉아 있었다. 이이의 학위 수여의 근거는 5本을 소급  
 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根地를 들추는데 있었다. 딸,

이이의 祖父는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奴隸였는데 이 노예의 孫子 되는 사람이 若문若문 훌륭하다는 것이었다. 아프리카 出身이라고 해서 世界平和에 공헌하는 일을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기에 할아버지 根地까지 들쭉서낼 아유가 奈邊에 있느냐는 것이 나의 거룩한 憤怒였다. 그래서 나는 내 門자리에 앉은 얼굴이 희끔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 알아 들었지나 아니하였느냐고 물었더니, 나의 英語理解力으로도 바로 알아 들었던 것이었다. 도대체 그야위 명예박사가

무엇이 관대 그 祖上族譜 - 족보가 아프리카에도 책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 를 들추어서 그가 노예로 美州로 팔려 온 것을 바로 - 無二한 이유로 삼아내 원 싶었다. 이러한 이 세학 行政者들의 총명을 나로서는 마땅치 않게 여겼지만, 받는 본인이 웃고 앉아있는 版局이니 無可奈何였다. 이렇게 되면 東洋에서 으뜸이기에 예절을 지켜온 나라 태생으로서도 못마땅한 노릇이었다. 不可異議를 絶한 일이었다. 그같은 사람 앞에서 주는 명예 학위가 노예였던 祖上の 德이라는 것이 어찌하면 그렇게 당연시 되는가는 생각이 머리에서 가셔 지지 않으려 유숙하던 집으로 돌아와 프랑스에서 온 집주인 할머니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는 나의 동조자임을 알아 역시 웃고 큰 수는 주재하는 군하고 마음이 다소 들렸으나, 나는 얼마동안 이렇게 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祖上을 거짓으로라도 높이다가 偶像化(?) 까지 하는 일이 우리나라 近世史에 얼마나 많았던가를 想起했다. 나란남도 새 王朝를

필히 부려 만들어 놓고는 五代祖 까지나 치헤어서 무슨 조  
 무슨 임금 하던 법절이 있는 나라의 철학이 왕국을 향해  
 알리는 이나라 사람들의 보령나 심령와는 어지간히도  
 다르다는 것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나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  
 하고 있게 되어 自嘯을 참치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은  
 자꾸 희어지기만 한다. - 1974. 10. 18 -

(위싱턴大 教授, 韓國文學)

- 수필 -

"山河"

김도훈

오랜전 Ernest Hemingway 의 작고를 추모  
 하다가, 어느신문에 그의 특집을 보다가 "Kilimanjaro 는  
 19,710 피트의 높이에 덮인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산이라고 한다. 그의 정상 서쪽은 마사이어로 'Nagje  
 Ngai' 즉 신의 집이라고 믿어진다. 그 서부 정상  
 가까이엔 천마리의 말라 빠지고, 연어들은 포박의 간헐기가  
 있다. 그 포박은 그 높은 곳에 올라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누구도 설명하여 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The Snows of Kilimanjaro" 의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과  
 함께 여머리의 기린들이 들리면서 웅시하는 길리안 자로  
 산의 사자를 볼이래 언젠가 한번 그곳에 올라가 보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름다운 길리안 자로 산에 대한 동경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후 세월이 흘러 미국 미국 SEATTLE에 유학해서

바쁘게 지나면서, 계속되는 흐리고 비나리는 겨울과  
 함께 불타기도 지나서 교정엔 하생도 드물고 땅에  
 개이 천번 여름의 어느날 아침이 됐다. 숙으로 부터  
 샌드위치 한조각을 넣은 종이 봉지를 들고 하교의 과로  
 가던중 main library 와 Administration 건물  
 사이를 거쳐 층계를 내려서는데 그놈이었다. 문득 흐른에  
 달한 아름다운 Mr. Rainer 와 함께 앞에 내려다 보이며  
 솟아 오르는 불수의 물줄기가 거리에 새겨져 있는 Kilimangara  
 산과 함께 그곳을 응시하고 있던 기린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영장시켜 한동안 묵묵히 응시 하였었다.  
 그후 과로 가서 나의 책상에 앉아서도 한참 그 황홀경에  
 도취되고 있던중, 함께 방을 쓰면서 차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들어왔다. 순차적으로 그 차에게 Mr. Rainer  
 에 함께 가기를 제의 하였더니, 그 친구도 쾌히  
 응낙하여 그 즉시로 차를 달려 Mr. Rainer 로 향  
 하였었다. 당고 아름다운 아침 free way 를 빠져  
 웅장하는 차들도 과히 빈번치 않은 길을 접어들어  
 그곳 국립공원 입구로 부터는 아랑드리가 되고, 하늘을 가려  
 햇빛까지 가려진 거대한 수목들을 지나 계속 오르니 밑에서  
 무덤덤 여름 날씨가 너무도 시원하고 옆에 돌기도 양고  
 눈과 함께 새하얀 아름덩어리 위를 어린이아이와 같이  
 밟고 달리던 생강과 함께 전개되는 지면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되던 생강이 눈에 선 하였었다.

그후 아름다운 이곳 여름도 지나고, 이곳  
 특유의 우울하고 계속 내리는 어느 겨울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있던중 먼저버리는 다른 한 친구로부터  
느닷없이 "you are a secret man." 이라고 하는 과히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

한국에서 자라온 애들중에도 정보라는 것라는  
아무관려도 없으면서 내가 알하던 특히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단지 기술 정보단이라는 이름밖에 없었으므로, 처음 듣는 차  
또는 나의 경향을 바라는 사람이다 경향을 '보고는 다시  
한번 나의 영감을 차다발을 보고는 자세한 설명라 하기에  
웃음을 금치 못하였음이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이차나 고당시의 내명함을 설언도 없고,  
한참동안 무엇때문에 그러하였을까 생각하여 보았다.  
오랜전 어느곳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어, 전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하고, 불라타의 페티 페티 가리 불라타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 라는 노래를 부른 일이 있었다.

내 이름이 보통 "Kim" 이라고 부르니, 이차나  
북북 인도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되는 Rudyard Kipling  
의 유명한 소설 "Kim"에 나오는 꼬아보 가리야, secret  
man 으로 되는 영리한 주인공 Kim 을 연상 하였을리가.  
그리고 이 Kim이 동양의 전통라 정복자 기수를 당고  
있으며, 노란 도복을 입고있는 Lama 를 따르고 있음을  
생각하고, 내가 부른 노란셔츠의 사나이를 이 Lama로  
차다하였을인가? 물론 이차나 내가 부른 노래를 들은인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이로나카한게도 꼬아도 물론  
secret man 도 아니며 단지 노총구의 장사장이 내가

이곳을 떠남에 즈음하여 신체의 강을 찾아가는 그  
소년의 주인공 Kim 을 생각 안해 볼수가 없게 되었다.

아름다운 Mr. Rainer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 위상통수의 위상통 대항을 떠나서, 새로이 가는곳이  
아름다운것으로 생각되는 Wisconsin 강이 흐르는  
위스콘신 주의 위스콘신 대항이다. 떠나서 아름다운  
나 이 애고, 나의 정력을 쏟은 이곳을 두어 두어,  
다시 나의 정력을 쏟으며,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이제 이곳 마중에서 "山河" 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기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내가 동경하는  
Kenya 와 Tanzania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의  
영동, 천연라 사비의 "킬리만자로 산" 위에  
올라보고, 또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주위에 이루어 놓았다는 기적의 교장으로 언뜻  
지는 동양의 "라인" 강변을 거닐게 될때 "山河"  
를 나의 이름으로 가지기로 하였으며, 언젠가 한국  
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위에 올라보고, 가장 큰  
"임록강"을 거닐수 있게 될때에는 나의 이름을  
"山河" 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Wisconsin 대항  
금속공학과 비서과정 >

靑野들

이 상철

이곳 Seattle에 온 지도 어언 400日 半이 되니보다.  
3년전 비행기서 처음 내린 그때의 Seattle과 지금의 이곳은  
2야말로 가시밭과 꽃밭이 다를까. 하여튼 득한 것만 가득했던  
그때의 마음이 그만큼 아릅나워졌거나 생각하니 한편 흐트하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한심하기도 하다.

靑雲과 홍안의 뜻은 일찌감치 깨진듯, 밝게진 얼굴로 주름잡이에  
정신 없는데 지난 4月, 이곳 오게 되는 것을 알자 여기는 구름  
정도가 아니라 무지개도 있는듯 내 마음은 부풀기만 했다.

하도 부풀려 아마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거개가 어떤 미친 친구의  
히죽거림을 목격했을게다. 학교가 노는 틈에 때 마추어 온 것이  
마침 그런 조그름을 부채질해 한달이 지나고 보니 조그름 3期에  
접어들어 自해서 소름돋는 "한돌이" (한심한 친구의 뜻)가  
되었는데 그런 중에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main guest"로  
저녁을 초대해준 K뭇, S뭇은 지금도 공연스레 고맙게 생각된다.

그런 것으로 어찌 사람의 사욕이 판단되어지랴마는 그래도 single  
들은 그런 조그만 것들이 모두 "마음의 표시"를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力說한다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married들이 나아올까...  
헛소리지!

却說하고, 이곳 靑野들 中에는 孃孃도 많더라.  
옛날 明洞에서 그 많은 아가씨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며  
저푸리고 지나간 것이 罪인양 근 3년을 눈은 장님의 번민을 거치니  
바야흐로 "色即空, 空即是非"의 道가 드였는지 과연  
"空"에서 보이기 始作 하더라 이거다. 그래서 처음엔 중구난방,  
전방지축을 좋아 했더니 아, 글세 그건 "흥" 이더라.

그래서 예의 그 준엄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니 "여-  
시시하다" 해 버려서 갑자기 반처해 지다가 발견한 妙策이  
역시 大慈大悲. 그러나 그것도 철저한 目標至上主義인 B목에  
의하면 꽤 시대의 Energy 保存에 逆行하는 "한심한  
재수"이고 보면 배었던 칼 풀한포기 못베고 그 낡은 칼집에  
도로 집어 넣어야 되나 보다.

결국 있는 frustration은 이리 靚麗들 중에서 三寸之道를  
터득한 어느 분들에게 질세라 미친듯이 떠돌이대며 푸는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천룡의 속음인 "꿈" 빛생이 속음이라  
나무래서 묘사인 남의 책상위에 버려둔 내 책에 슬슬  
신명이 쓰이니 또 한번 外道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의 靚麗들은 3010이 다 기막힌 展示品들이 될수  
있을 만큼 모양들이 特異이 있으나 그 중에도 특히 번민을  
즐기는 某君은 나의 푸르렀던 봄을 보는 것 같아 대면한데  
그의 고민은 다음아닌 "multiple-choice". 묘사인 그 중  
한 값이 맞는가를 증명기 위해 분발중... 분류이 많은  
C목은 2 나이에도 젊었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는지 최근  
나에게 그 힘을 誇示키 위해 그의 十年長技인 "뛰기"로  
jogging의 J도 모르는 나에게 도전, 묘사 每日 시험에  
대비해 연마 중이라는 소식... 나만 보면 그 함박웃음을  
아기지 않는 B목, 반가워서 그런 줄 알고 좋아했더니 가만 보니까  
나를 볼때마다 無 목표 至上主義 標本에서 보는 비참한 모습에  
갖는 안도의 희열 때문에 웃는 것. 언제가 내가 그 함박웃음을 웃으리라.

두것이는 "화끈하게"를 외치는 표정의 그 돌린 어깨를  
몇번인가 내려보려고 툭툭 쳐봐도 도저히 구경. 오히려 "맛  
먹자고 노다"는 숨은 뜻만 뱉각이 되어 나만보면 그 어깨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마치 "니"를 연상케한다.

후쿠오카와의 몇번의 접촉에서 느낀 그들의 그야말로  
날카롭기 짝이 없는 行動力은 "言前行"인 우리인 그거  
아연케만 보일뿐. 격세지감이 따르는 독립감 (호사이 서울 여행.  
비슷한말: 소외감)은 지나치도록 큰데 그제야 술 베풀때엔 나의  
말도 가끔 귀담아 듣고 나도 한 몫 끼워 주는 것으로 대만족.

貞烈보다는 情熱을 더 좋아하는 이곳 嬢嬢들은 좀 조용하고  
심각해지면 금방 "시시하다"라는 말이 귀에 울려 오는듯해서  
나도 남들따라 미친듯 몸을 재빨리 돌려서 따라가는데  
미상불 할 짓은 분명 못되고 보면 한뼘 처량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선배 총각들 (-놈 스스로를 불러 糞要事)이 이곳서  
왜 그렇듯 된것 (hard thing; well-done이 아님)만 기다리고  
있나를 切感하게 되더라 이거다.

최유간 나는 '狂期'에서 "멍꺼구출期"로 그리고 이제 다시  
"復古 + 歸心 + 無常 + 불" 期를 접어드나 보다.

술술 배가 고파지않구나. "유연한 flow"를 부르짖으며 나보고  
총각이 너무 힘이 없더며 언제고 자기 집에 밥먹으러 와달라구요.  
안가는 나에게 눈까지 흘기려던 Mrs. W 그 처부들을 오겟만에  
즐겁게 해 주는 거야? 그럼가는 거야. 가서 밥을 먹어주면  
좋아들 하는 거야... 정말? ... 몰라. (전공공학 박사리정)

# 학생복인有感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때, 행복하다는 말보다 더 격렬한 표현은 없었는가?  
아무리 어리숙은 후에도 그 말처럼 꼭 맞고 행복스럽게 되는 단어도 없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행복과 엄마가 된다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매어진다든 실감. 바로 그것일거다  
여자에게 무열스레 제멋대로 피카요 얘기가 기억난다. 그의 후인 프랑고와르도  
심한 바람장이 남편으로 후려 관심을 잡아두고 싶어 애써 아기를 가졌었다.  
현데, 피카고는 그녀에게 턱 턱 가장 큰 매력은 상상했다고. 그녀의  
매력은 여자답지 않는데 있었다나? 세상에 변의 변 매력도 다 갖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여자일 수 없단말인가? 그녀는 생애에 딱 한번 여자스럽게도  
온 몸을 울어버렸었다. 아무런 갖가지 행복이 가득찬 산모는 온 엄마가  
온 아기가 사랑스럽게만 보인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심한 양력으로  
알곡은 음성을 찾게되고, ... 하기가 한 생명을 잉태했는데 물론 한리는 만무다  
몇몇이 산모가 해산하러 들어갈때, 튀마루기 벗어 놓은 하얀 고무산은  
들어보면서 내가 과연 이 고무산은 다시 신을수 있는가 돼 물어준다  
또 우리조삼 서방님들은 색씨가 진통을 겪을때, 봉창사이로 상투머리를  
들이고 함께 고향을 치켰었고, 해산후 서방님의 머리는 산모가 하투  
함께 끌어 잡아다낸 지라 상투가 온통 빠져 있었더라  
이처럼 어렵다는 해산을 딸 아이가 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아씨는  
"내 대견스런 딸아! ..." 이렇게 시작해서 온통은 신통과 자랑스러움으로  
흔내왔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앙했던 그 아기가 이렇게 사라니  
지금 내 품에서 잠 들어가고 있다.  
찰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 어렸을적 그냥 좋아서 불러줬던  
프랑스시 자랑가가 이처럼 아름답게 권장될 수가 없다  
난 이제껏 탄 한번도 "남자였더라면 ..." 을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여자로 태어났음은 늘 감사 드렸었는데 —  
여자들은 세상 자랑하면서 조용히 자랑가를 노래하고 있다  
아씨가 내게 걸어온 생사가 목걸이를 안치락거려다, 우리 아기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Good NIGHT! Kiss 를 해주고 나도  
우리 아기처럼 고운 꿈을 꾸러 가야겠다.

지금의 나로서, 나의 그시절을 눈물없이 회상할수 없다. 그래도 그때는 울지않았다. 前途밖에 없던 그시절이었다. 1933년 여름방학이 다달았다. 귀속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니 내일은 房을 비고 나가라고 경고하였다.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學費預算없이 싸와 나가는 苦學生의 신세라, 마지막날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時刻까지는 그저 눈썹 감고 시험성적을 리는 것만이 나의 알바이었다, 醫科에 入學하는 것이 그當時 내 目標이 있었으니까. 시험을 끝내고 나니, 當面키 싫은 그때는 당도했다. 돈도 없고 갈데도 없고 호소해볼데도 없다. 할수없이 등사정이나 하고 귀분만이라도 돌려보려고, 같이 傭學하는 C兄을 찾아갔다. 難笑을 웃음으로 맞을 줄 아는 C兄은 벌써 여름방학동안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오는 學年度 學費處理할 계획을 대강 세워놓고, "Mr. Lee 도, 어데서 돈 한 五十弗쯤 변동해 가지고, 이 Nashville 은 떠나서, Louisville 에 가서 여름동안 行商을 하면, 여름동안 먹고 살고, 가을에 공부할 學費도 좀 생길꺼요" 하였다. 듣고 나니 口味는 당기나, 五十弗! 그때 내게는 엄두를 낼수 없는 큰돈이었다. 全美國이 大不景氣를 당하여 정부는 그 市民失職者 살려낼 方策에 급급하였고, 所謂 宗教的 慈善事業家들은 自國市民救濟에 만드 진력이 나서, 外國學生! 왜 어서 네나라로 도라가지 않느냐? 너는 Korean?! 그러면 日本영사관으로 가서 相談할것아니냐고 冷待하였다. 排日思想에 불타던 나에게, 이말은 無오의 치욕이었다. 돈없는 설움에 나라없는 설움까지 덮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고 버티어오는 나로서 五十弗를 融通한다는 것은 전혀 不可能이었다. C兄도 내형편을 다 알던 터라,

서로 바라보며 한심만 짓고 앉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서, “아, 참  
여보 Mr. Lee, 당신, 그 좋은 친구 있잖소? Dr. Sprin...? 그이야  
설마 당신을 이런데 모른다 하겠소?” 그믐밤중에 소내기 마지며 길  
잃고 허덕일때의 번개불같이 내머리속에 빛이 빛였다. 그러나 순간뿐  
다시 캄캄해졌다.

C兄이 말한 Dr. Sprinkle은 나의 가장 존경하는 先生이었다.  
일찍이 Yale 대학 哲學部에서 Indeterminism 方面으로, 反宿命論的  
論文을 쓰고 Ph.D.를 받은 이로서, 自由思想家이며, 社會主義方面에  
有意하여, 原始的, 宗敎的 社會主義思想을 견지, Marx, Engels,  
Lenin 等의 所謂科學的, 唯物論的 社會主義의 著書들을 通讀  
하여, 그方面에 自己의 主見을 가졌다. 그러나 唯物論者이거나  
共產主義者는 아니며, 더욱이 共產黨라는 全然 溪連이 없는 이였다.  
Nashville 에 所在한 美國南 監理敎宗敎 敎育部에 一職을 가지  
고 月給生活을 하며, 2-Bed room 짜리 적은 집을 가지고 새로이  
家族生活을 시작한 분인데, 우연히 나를 만나 談話하는 중에 그분  
이 나를 同情하게 되어 내가 각급 그이의 신세를 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분이 무슨 財產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만약  
큰 돈 問題를 提出한다면, 彼此 難處한 경우에 빠져, 지금까지  
의 親分을 상할 뿐이겠으므로, 내가 그런 말은 그치지 않기로  
斷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C兄은, “여보,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一生의 危機에  
處해 있잖소? 이런데 안도아 준다면, 그까짓 親分이란 거 다  
뭣에 쓰자는 거요? 단소리 말고, 어서 그이한테 가서, 썩 봐요,  
밀적야 본전이 지워.” 이렇게 까지 나를 推進시키는 바람에, 나도  
勇斷을 내어, Dr. Sprinkle을 찾아 가서, 내 身狀을 다 말하고,

五十弗을 꾸어 수면 여름동안 잘 利用하고 九月에 도라와서 還報 하겠다고 한즉, 그분이 잠간 생각하더니, "O.K. 내 \$50 줄테니 가지고 가서 여름동안 잘 努力해보쇼." 하며 即時 銀行手票를 써주었다. 지금의五千弗보다 더 귀한 그五十弗.

이리하여 나는 先驗者인 C兄을 따라 Louisville, Ky. 로 行商을 떠났다. 가서, 제일 싼 House-Keeping-room 에 짐을 풀고, City map 을 펴 놓고 이튿날 出征할 路程을 계획해 놓고 잤다. 이튿날 부터 나는 일찌감치 떠나서 終日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다가 도라오고, 날마다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런데 웬일인지 C兄은 萬事太平으로 늦도록 자고 午後에나 二,三時間씩만 나갔다가 도라오고 만다. 며칠 후에 그동안 決算을 해놓고 比較해본즉, 나의 賣高는 C兄의 1/2도 못되었다 "大体 이거 어찌된셈이오? 秘方을 좀 가르쳐 주어야지 어디 살겠오" 하고 대어드니, C兄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리지 말고. You 가 해온 戰術을 이야기 해봐오, 그러면 내 戰術도 뵈 줄테니." 그래서 나는 솔찍히, 날마다 아침부터 나가서, 깨끗한 住宅地帶를 찾고, 금지막한 집에 가서 Bell 을 울리고, 주인이 門을 열면, 인사를 하고, 나自身을 소개하고, 東洋物品을 팔러왔다고 하면, 十집에 九집은 "No" 하고 거절하고 門 탁 달아 버리 二라고 告白하였다. C兄은 웃으면서, "Mr. Lee-戰術대로 하면, 다른 누구도 별수없지오 맹글해야 humor 나 좀더 섞어 볼뿐, 별로 더 나은 成果를 못 얻을거오. 내 戰術은 그와 正反對로, 아주 덜덜하고 경검한 黑人村으로 가는 거오, 相對는 百에 九十九는 女子오. 그네들은 대개 다 밤에는 음탕하게 별짓 다하고 놀다가 午前中에는 세상 모르고 자고, 午後에야 이러나니까, 午前中에는 가볼 必要도 없고, 午後에만 가보는 것인데, 가서도 점잖게 Mr. Lee 式으로 行하면 안되니까, 門 두드려서

열면, Hi, Good Morning 하고 그女子를 떼어 밀다 싶이 房으로 들어서면서 humorous 하게 힌수작을 떼 벌이며 튜조로, "오늘 your luck 이 좋으려면 이런 좋은 香을 사서 香불을 피어서 房을 향기롭게 하고, 이런 빛갈의 Silk 옷을 입고..... 式의 풍을 치면, 論理야 됐건 말건, 그女의 氣分이 좋아져서, 제게 必要 없는 것도 사면, 제 분수에 넘치는 것도 막산다우. 또, 어떤 女子는 제 분에 넘치는 옷을 가지고는 싶는데 돈이 없으면, 제 Bed 로 나를 막 끌고 가서 그것과 交換하자고 달라 붙는데는 질색이지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무뜨뜨하게 拒絶 말고, 手段을 써서 延期하는 式으로, 그 옷을 本밑천에 조금만 더 붙여 받고 주어 버리고, 남아지 돈은 몇일 후에 다시 올터이니 그때 보자고 그래 버리는 거요."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후에도 나는 白人地區에서 좀더 애써 보다가, 너무도 冷待를 견딜수 없어서, 나도 黑人地帶로 가서 닥드려보았으나, C兄과 같은 成果는 못 얻었다. 天賦的으로 그렇게 타고난 手腕이 없는 것을 어찌 하랴. 큰 利益은 거녕, 房세와 食費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고생은 죽도록 하였으나, 九月에 最終決算은 本錢五十弗 다 없어지고 在庫도 값진 것은 없는 텅텅이가 되었다. 新學期 學費도 問題 터니와, Dr. Sprinkle 을 가서 불 날이 없어 안타까웠다. 내가 이렇게 無信한 者가 되다니! 그래도 다른 데는 갈데가 없어, 夕陽은 Nashville 로 도라왔고; 아무래도 Dr. Sprinkle 은 안맞날수 없어서, 맥빠진 形態로 머리숙이고 가서, 經過를 報告하였다. 그先生은 웃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半쯤은 그러리라 짐작했으나, 그저 앉았지 말고 努力해보라고 그돈 주었던 것이니 未安해 말고, 앞 일이나 잘 처리 하시오" 하였다. (끝)

가물거리는 金門橋

全啓栢

내 美國生活은 一九四五年 十一月中의 어느날 그때의 商工部 主權로 거행된 어느 試馬會를 契機로 시작된다. 이 試馬會는 그때 美軍政庁와 商工部를 兼하는 美國에서 敎育받은 몇사람들이 希望된지 淸아안된 淸약한 韓國을 위하여 여러分野에서 몇사람씩 試馬會를 시켜야 하겠다는데서 실시된 것이었다.

여기서 試馬된 試馬會는 淸지않아 渡美케 되어 碩士學位를 各々 추구할줄로 되어 있었는데 世上이 每日 勞苦하게 勞하고 있는 때라 우리 試馬會도 淸연고인지 淸말이 되고 一年이 지나니 一九四八年 二月에야 나는 비로소 美國에 오게 되었다.

배는 三川 dry dock에서 떠났다. 배는 U.S.A.T General Greely 라는 12,000 톤 짜리 배였다. 一九四八年 二月 十一日 午後四時 부터 二月 十六日 午前十一時頃 Golden Gate Bridge 가 안개속의 가물거리 甲板에 서있는 나의 가슴이 淸잡을수 없이 두근거리는 그때까지 淸二週日間의 그 航海가 二十餘日 동안의 내 韓國生活에 終止符를 찍는 큰 座標點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꿈이나 想像할수 있었으랴. 太平洋上의 어느 日曜日

二千餘의 美歸郷軍人中에 끼여한 韓國人이란 도모지 四名이었다. Columbia 의 鄭慶朝氏 St. Barbara 의 Calif. State Col. 이 朴贊一氏, El Paso 의 "하우스 보이" 兼 무슨 中學校 學生으로 간다는 洪某과 그.

어느 土曜日 저녁 배의 敎會 傳導師가 찾아오더니 四名에서 한사람을

다음날 礼拜後에 부르라 부탁. 우리들은 서로 궁리하다 各各 재주를 한번씩  
부러보이로했다. "무로"는 葉氏가 '아리랑', 洪氏가 「平州야수뿔길」 崔氏가  
무순 詩詞에 내가 「나물개는 처녀」. 지금생각하면 房안이 가득찬 관광앞이  
비수도 뻔뻔했다 싶으나 다음날 冊內 news 이는 金직한 '헤드 라인' 과  
함께 *The Korean student, en route to the States, hit the tunes of fond recollection...*  
국회의 영웅한 칭찬의 기록이 나지 않았는가! 그날부터 우리들이  
그 汽船 안의 인기 人物이 된것은 물론이었다.

처음 보는 미국 大學

4.09 - 12<sup>th</sup> 시.에 下宿을 檢한지 = 三日後였는가 한다. 나보다  
約 三個月을 앞두고 Seattle에와 UW의 物理科에 다니는 金榮培氏가  
「한번 始作하면 機會 얻기 어려워 Winter Quarter 끝까지 시여  
재이나 보소 하고 忠告함에도 不拘하고 必산돈 들여왔으니가 하루라도 速히  
工夫 시작해야지 하는말에 必需的 서류를 끼고서 UW에 나갔다

처음 보는 UW Campus는 公園 안에 지은 學校 같은 느낌이였다.  
二次大戰後 일어나 안되었기 때문에 GI Bill 學生을 위한 Barack가  
校庭에는 많았으나 功드려 가리는 파란 잔디밭 建物 사이에 서있는 칼스럼에  
자란 나무들 많고 깨끗한 공은 限없이 시원하고 상쾌했다.

걸어다녀 보니 校庭: 相當히 寬이 이안하면 한국에도 자랑할수  
있-리라 하는 기분이였다. 가는 營生에 마다 事務는 書式으로 주로 貰아디  
하면 打字機를 쓴 冊床 座席이 많은 自식 아가씨는 「Fill this out,  
Please」 하고 淸종이 各양종이 등등을 준다. 약간 苦惱했던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担任 教授도 該目選 沢表를 보고 別 沒 없었던것이  
不滿意였지 美國에서는 學生自식의 自由選 沢를 주로 살며 教育을

해나가고 學校當局서 一括的으로 하는것을 最少로 끝인라는것을 나 아직  
알바가 없었기. 英雄 추종의 傾向이 많이보이는 吳승까지의 解放  
韓國의 經제도 이런 制度差뻘이 관련이 있는것이 아닐까.

學校 안에서 多情하게 조잘거리며 왔다갔다하는 美國男女學生들의  
재미스럽고 걱정없이 보이는것은 저들은 韓國學生들은 누구나 느끼는 듯이리라.  
구급 要求 分量과 宿題 양은것도 美國留學이 機待치 않았던 몇가지 申의  
한가지 몇年만이 서울서 大學처럼 준비하던 中學時代와 같이 광둥까지  
冊을 따는 나날이 큰 시작되었다.

### 農場에서의 어느날

吳승우의 二十年前에 이곳에서 勤學하려는 韓國學生들에게는  
job을 구한다는것은 여간만 힘든것이 아니었다. 一九四八年 여름 나는  
Seattle 南쪽 近郊에 있는 어느 truck farm이 일을 얻었고  
그農場에는 나사에도 李, 金, 金老人等 移民으로 와 차를 끄는  
韓國 부들 三 四名이 같이 있었기. 이들은 「 왓슨 마-다-  
유 베이커의 백스 투-자이 하우먼이 유 갠히어 쉐판드 브라운스  
유 라이더 - 뉴노 - 디아다사이 튜티-섹션. 무린 디-스-  
나다-스.」 와 같은 영어를 하는 美國에 건너온 후로 一生도 美國社會의  
밑바닥에서 지머기의 일을하면서 延命 래운 그런 老人들 이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한여름은 나에게 貴重한 韓國移民의 生活 狀을  
경험시켜 주었고 또 그사람들과 人情을 맺어볼 機會를 주었다. 一九四八年  
九月 어느날의 내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 관심한 아침이었다 李老人은 五時부터 일어나 식당을 딸갑거리며  
들어 다녔다. 나는 Bed에서 시우카리를 걷어 뒀으며 조급하게  
잠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 언제나와 같이 李老人은 七時 十分前이 되니까

큰 knock 를 하며 이숙자 - 전 잃어 + 가져 주었다 朝倉君을  
 일찍이친 李先主는 李先主 안을 이리왔라 저리왔라 한다. 왜이?  
 지나가는 農場主를 보드니 李先主를 열고 나가 서너마디 이야기를 하드니 들이키.  
 "아이고 큰일이길 : 오늘도 '파 - 시냇도 50 각스리니' 미"  
 "파 - 시냇 물라 : 뿌리가 댓자라 되서 파' 진땅 나느고 " 아이 모두들  
 물리느라 얹나와? 자며 같이 일하는 비플은 드문 차라 李先主를 책망이라  
 박같은 어둡고 잤다 農場主의 화물車는 farm 앞에서 기달렸라  
 나가보이 드들은 農場主의 아들 Eddie 가 강둑이다. 강이 좀 갑뽀했 +  
 드들은 어떻게 1 時間을 걸렸라 저덕 밥먹을때 인제 갈릴날도 열라  
 안 갔었나? 李先主 濟州島 故郷住所 안저 가르켜 주십시오 하 -  
 내 故郷은 南서얼라 안되는 高山里라는 데데 그속은 堂山里 高山里 +  
 슌해서 堂山里 두는 :미 리. 드상입니다 라며 언뜻을 보드듯한 눈을  
 강안거렸라. 마치 李先主의 자기 少年時分를 생각 하시듯이."

동보이 알렸든 그 옛날이 李先主속이 들은 物體와같이 아름답게  
 기억한다. (기재공학 박사)

(4) 2012년 1월 10일

김	홍	기	북인리 아들 귀국
이	청	행	Boston으로 대학원 과정 (피아노)
장	석	우	박사학위 (Fishery) 끝내 New Jersey로.
정	우	진	한국 자유 신문 시애틀을 주재 기자로 활약중. 전화 525-4174.
조	대	성	General Exam 끝내, 1月初 귀국 예정.
조	미	정	석사과정 (인문학) 끝내, 지난 8月 귀국.

북신앙회원 주소는 한인주소록에 곧 발간 예정.

나의 苦學餘談記

李 善 復

苦學經驗談을 써달라는 請託을 받았으나 나의 留學經驗談은 화려했던 것도 아니며 여러 學生諸位에게 좋은 標本이 될만한 것도 아니고 재치간산히 要約해서 數字적기로 한다.

나의 留學經驗談이란 結局 苦學談에 不過 한의 其當時 大部分(1) 韓國 學生들이 境遇와 같이 各食堂 Hotel에서 접시뒀기 Bus-boy waiter 등의 職을 求하여 學費를 마련했던 것이다. 近來에 듣는 消息에 依하면 移民局에서 Work permit도 제대로 發給안해준다니 여러 留學生들이 苦學의 量을 줄로 짐작이 간다.

그때 苦學生活中에서 몇가지 記憶하는것은 한 여름 放學동안 中國 食堂에서 Dish washer 職을 求해서 일하던 때의 經驗이다. 첫때로 月末에 報酬를 받는데 불룩하고 조그만 手帳봉투를 주기에 유심히 살펴보니 봉투 表面에 「혹보 그금(賃金)」과 쓰여있었고 이어 密封해보니 그 안에는 모두 現札로 불룩히 들어있지 않은가! 明細簿라는것도 없고 控除金인 Social security tax, wage withholding tax 같은것도 아랑곳없이 이런 留學生인 此處地를 特別히 配慮해서인가 생각도 했으나 다른 徒業員(全部 中國人이었음)한테도 같은 方法으로 支拂한 것을 보면 그런지는 알맞을 것이고... 아마 充後에 받게될 Social security 年金 같은 것은 구차하게 하여 생각지 말고 제가 努力해서 벌고 제가 貯蓄도 하여 제가 養老해서 처리 하라는 것 이었을까?

두번째것은 徒業員들의 食事인데 閑暇한 時間을 택하여 徒業員들을 爲해서 준비된 料理를 같은 場所에 모두 모여서, 主人 徒業員을 가리지 않고 같이 먹던 일이다. 나는 접시뒀이였으므로 上下를 따진다면 末端의 職인데도 때로는 主人도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을때는 흐뭇한 기분 나기도 했던 것이다. 亦是 差別을 받지 않은데서 오는 기쁨이었을지도 모른다.

세번째로 記憶하는것은, 그 食堂主人이 여러 用務가 생겨서 나를 부를때 마다 「高麗人」이라고 愛稱(?)하던 일이다. 高麗가 亡한지도 五百年이 넘는 今日에도 우리를 「高麗人」이라고 부러준 理由는 高麗人參뿐만 아니고 무엇인가 中國天下에 널리 알려진 우리 祖上들의 違業의 德이 아닐까 하고 高麗의 後孫임을 自負케도 했던 것이다. 近來에 連鎖的으로 일어나는 集團死 刑宣告 無期懲役 등으로 널리 世上을 소란케 하는 암담한 現狀속 에 살고 있는 것 같 보여지는 韓國人의 影像과는 너무나 对照的이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것 記憶을 더듬을 때 마다, 「自古로 皆有死 어니와 民無信 시면 不位 어니라」고한 어떤 賢者의 말씀이 생각난다. 外地에서 苦學하는 여러 兄弟 姉妹들의 幸運을 비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 회 원 동 정

- 김 기 상      12月初 経営學 博士課程을 위하여 Univ of Texas (Austin) 으로 떠날예정.
- 김 동 호      Friday Harbor에서學位論文 마무리에 열중. 新年初學位 取得과 함께 南美 (Chile)에 돌아갈 예정.
- 김 도 훈      Wasconsin에서 학생회에 안부와 함께 誠을 보내왔음.
- 김 실 동      DPAA 마무리에 분망중이면서 다시 교정에 돌아와 社會學科 講壇에섬.
- 김 철 준      가을학기부터 經濟科 大學院課程에 突擊.
- 김 현 길      South Florida 大學 助教授로 부임.
- 동 상      政治學 博士學位를 받고 Alaska에서 교편생활중.
- 박 건      論文資料 수집차 渡日準備에 東奔西走.
- 박 수      학기 끝나고 귀국 (經營學 博士).
- 박 광      Business Space Design에서 근무 (MA2-2195)
- 박 용      藥學科 卒業후 Group Health에 就職.
- 오 근      Las Angeles 宇會 參禱하고 夫人 帶同하여 못다한 山天구경.
- 오 제      得男.
- 유 재      Univ of California (Davis) Law School에서 一片丹心 學究에 全力.
- 유 창      두남.
- 윤 희      두남.
- 이 명      結婚하고 息子학위 3료.
- 이 의      학교 옆으로 이사. 새주소: 3768 Univ Way N.E #126 (632-6352)
- 이 명      California로 就職. 777 South Mathilda Apt. F-168, Sunnyvale, Calif. 94087 (408-375-8690)
- 이 명      嶺南의 嶺南 嶺南하며 쌍둥이 데리고 이사. (전화번호 543-3807)
- 이 수      家族相逢과 학교 옆으로 이사. 새주소: 3900호 University Way N.E
- 기 동      새주소: 5241 18th Ave N.E. 전화 522-7920
- 관 이      새주소: 4009 15th Ave N.E. #213
- 김 원      移徙, 家族相逢 (523-6066)
- 새주소: 8627 23rd N.E. (45페이지이 계속)

## 광 고 사 항

1. 학생회비 일시 귀국 신청서, 수학비 환급 신청서,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해외 이국 허가 신청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서둘러 필요하신 분은 이 영욱 양 (전화 543-7069)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회비 대외장학금을 회원에게 대외하고 있습니다. 대외 한도액은 150불,  
대외기간은 3개월입니다. 신청은 학생회 재무 서혜정 양 (전화 543-7468)  
에게 하십시오.
3. 학생회비 다음 학생회비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품 목 : 본단 수필, 여행기, 등후담, 단편소설, 광고사항 등.  
나. 우송주소 : KOREAN STUDENTS ASSOCIATION  
4717 18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05  
다. 마감 : 1974년 12월 31일  
라. 한인회 여러분우 특고도 환영합니다.

## 포 근 징 후 기

- \* 이번 학생회비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좋은 글을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사유를 표합니다.
- \* 이번호 편집은 반재환 이익환 박근홍 윤희경 제형 계서 받아 주셨다.  
이수길 형 부인, 우동숙 형 부인 이명호 형 최재응 형 계서는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주셨다. 이번에도 편집위원 박광호 형 계서 구조해 주셨다.
- \* 학생회비 학생회비 발간을 위해 이선복 현생 (20불), 이창희 현생 (50불)  
김기성 형 (20불), 김도훈 형 (17불 85원), 윤계희 형 (10불), 반재환 형 (10불)  
배스카발씨 부인 정단 (10불), 조미정 양 (10불), 이수길 형 (10불)께서 성금을 보내  
주셨다. 감사한 사유를 표합니다. (이영욱, 서혜정 태석원 우정환 이창복)